

2024.02.23.(금) 증권사리포트

만든 날짜: 2024-02-23 오전 4:26

수정한 날짜: 2024-02-23 오전 4:37

2024.02.23.(금) 증권사리포트

필어비스

게임 업종 Top Pick

[\[출처\] 키움증권 김진구 애널리스트](#)

게임 업종 Top pick 유지

동사 목표주가를 기존 7.5만원에서 5.1만원으로 하향하되 게임 업종 Top pick관점은 유지한다. 목표주가 산정은 붉은사막의 초기 성과가 반영될 25E 지배주주지분 1,449억원에 목표 PER 25배와 연간 할인율 10%를 적용한 결과다. 동사 신작 출시가 내년으로 다소 멀지만 동사를 게임 업종 탑픽으로 제시하는 이유는 글로벌 게임시장의 맥점인 트리플 A급 콘솔시장에 대한 접점에 있어서 국내 상장사 중에 가장 부합하는 회사이기 때문이다. 역으로 이야기하면 국내 게임시장이 해당 세그먼트 공략과 투자 등에 소극적 상황이 반증되는 바 국내게임 현실로도 보다 엄중하고 자성있는 복기가 필요하다 할 수 있으며 동사도 글로벌 주요 경쟁사들이 상용 엔진을 중심으로 AI와 솔루션 등을 결합한 신작 출시에 경쟁력을 높여갈 점은 분명 잠재적 리스크로 작동할 수 있으며 동사가 완벽성에 신중을 기하는 것은 좋으나 이는 자체 틀에 갇혀 게임시장의 무쌍한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우를 범할 수 있음을 반드시 인지해야 한다.

주요 게임별 추정치 점검 결과

검은사막 온라인 24E, 25E 매출 증가율은 각각 -3%, -4%로 반영했으며 이브 온라인의 24E, 25E 매출 증가율은 각각 0%, -3%로 추정치에 반영했다. 붉은사막 출시 시기는 추가 딜레이 여지까지 감안해 3Q25E로 가정했으며 25년에 직면할 주요 경쟁강도 증가를 감안해 초기 분기 패키지 판매 375만장과 이후 4년 기간을 합산한 누적 판매 750만장으로 추정치를 조정했다. 초기 블렌디드 프라이스 75달러를 감안한 25E 동 게임 매출 추정은 3,048억원을 반영했다. 멀티플레이 버전은 출시 기준 1년반 이후 1Q27E부터 PUR 10% 및 ARPPU 10달러 기준을 적용했다. 도깨비 출시 시기는 붉은사막 출시 이후 1년 시차를 둔 3Q26E로 가정했으며 초기 분기 판매 400만장과 이후 4년 기간을 합산한 누적 판매 1천만장을 추정치에 반영했으며, 블렌디드 프라이스 50달러와 멀티플레이 동시 투입에 따른 PUR 20% 및 ARPPU 10달러를 수익모델로 동시에 반영했다. 이에 26E 도깨비 매출은 2,355억원을 추정에 반영했다. 마케팅비는 24E, 25E 각각 386억원, 727억원을 반영하면서 자체 퍼블리싱에 연동된 비용투입을 반영했다. 한편 붉은사막 유저 시연은 8월 게임스컴을 유력히 조망하며 사전에 유저 기대감을 증폭시킬 롱타임 인게임 영상 공개를 사측이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재강조한다. 검은사막 온라인 중국 판호 이슈는 중기적 모멘텀으로 글로벌 버전 지속성을 통해 기대를 높이는 요소로 작동할 수 있다.

투자지표

(십억원, IFRS 연결)	2021	2022	2023F	2024F
매출액	403.8	385.7	333.5	315.2
영업이익	43.0	16.4	-16.4	-47.2
EBITDA	67.3	42.1	10.6	-19.2
세전이익	77.7	-55.8	22.1	-16.2
순이익	59.4	-43.0	15.4	-12.3
지배주주지분순이익	59.4	-43.0	15.4	-12.3
EPS(원)	897	-662	239	-191
증감률(% YoY)	-41.9	적전	흑전	적전
PER(배)	154.1	-63.4	161.8	-176.3
PBR(배)	12.74	3.85	3.40	2.93
EV/EBITDA(배)	132.9	60.2	216.0	-102.4
영업이익률(%)	10.6	4.3	-4.9	-15.0
ROE(%)	8.8	-6.1	2.1	-1.7
순차입금비율(%)	-28.8	-23.1	-27.2	-27.1



KG모빌리티

4분기 만에 적자

[\[출처\] 하나증권 송선재 애널리스트](#)

4Q23 판매대수: 글로벌 -41% (YoY), 내수 -38%, 수출 -46%

KG모빌리티의 2023년 4분기 완성차 판매대수는 41% (YoY) 감소한 19,700대를 기록했는데, 내수가 12,361대로 38% (YoY) 감소했고, 수출도 7,339대로 46% (YoY) 감소했다. 주력 모델인 토레스(4Q 글로벌/내수/수출 비중 48%/54%/38%)의 전기차 버전인 EVX가 신규 기여했지만, 내연기관 모델들은 겨울철 전조등 눈쌓임 문제 여파로 감소했다. 또한 조립공장 공정개선 공사로 인해 일부 라인에서 60일 이상 섯다운도 있었다. 2023년 연간 글로벌 판매는 2% (YoY) 증가한 116,099대였고, 내수/수출이 각각 -8%/+17% (YoY) 변동한 63,345대/52,574대를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중남미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판매가 증가했다.

4Q23 Review: 영업이익률 -4.0% 기록

4분기 매출액/영업이익은 7,451억원/-299억원(영업이익률 -4.0%, -3.8%p (YoY))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대비 각각 -27%/적자 지속 변동하였다. 원가절감 노력이 지속되었지만, 판매대수와 매출액 감소의 영향으로 매출원가율이 3.9% (YoY), 6.5% (QoQ) 높아지면서 93.8%까지 높아진 영향이다. 93%대의 매출원가율은 최근 2년간 분기 기준 가장 높은 수준이다. 결과로 영업이익률은 -4.0%(-3.8%p (YoY), -5.6%p (QoQ))를 기록하면서 1분기~3분기 연속 흑자를 마감하고 적자를 기록했다. 세전이익/순이익도 모두 전년 동기대비 적자 지속하면서 각각 -468억원/-475억원을 기록했다. 2023년 연간 매출액/영업이익은 +9%/흑전 변동한 37,402억원/125억원(영업이익률 0.3%, +3.6%p (YoY))으로 마감되었다. 2023년말 부채비율은 148%를 기록했다.

2024년 판매대수 +27% 목표

KG모빌리티는 2024년 연간 판매대수 목표로 27% 증가한 14.7만대를 제시했다. 공장 섯다운이 해소되면서 1분기 이후 생산이 정상화되고 있고, 4Q23 출시한 토레스 EVX의 온기 반영(2024년 1.8만대 목표)과 4월 토레스 F/L의 출시, 그리고 중동 등 해외 시장 회복이 반영된 것이다. 추가적으로 사우디/베트남 업체향 CKD 물량이 신규로 1.5만대(ASP 2,500만원 전후 추정) 더해질 것으로 전망 중이다. 믹스 상향에 따른 ASP 상승이 더해지면서 매출액은 5.5조원 이상, 영업이익은 1,000억원 이상을 목표 중이다. 만약 판매목표를 달성할 경우 현재 60% 전후의 공장가동률(생산능력 20만대 기준)이 70% 이상으로 상승하면서 생산 레버리지 효과로 수익성이 개선될 수 있겠지만, 업황 둔화 및 최근 토레스 EVX의 판가 인하 등을 고려할 때 다소 공격적인 목표를 제시한 것으로 보여진다. 실적 및 주가의 핵심 포인트로서 월별/분기별 판매대수 추이를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판단이다.

Financial Data

(십억원, %, 배, 원)

투자지표	2019	2020	2021	2022
매출액	3,624	2,950	2,429	3,434
영업이익	(282)	(449)	(261)	(112)
세전이익	(341)	(504)	(266)	(62)
순이익	(341)	(504)	(266)	(60)
EPS	(22,220)	(32,657)	(17,223)	(1,071)
증감율	적지	적지	적지	적지
PER	(0.3)	(0.3)	(0.5)	(8.2)
PBR	0.3	(1.5)	(1.4)	1.5
EV/EBITDA	0.0	0.0	0.0	14.1
ROE	(84.7)	572.3	268.5	(5.5)
BPS	26,103	(5,706)	(6,414)	5,846
DPS	0	0	0	0



엠로

해외 진출에 모든 역량 집중

[\[출처\] IBK투자증권 김태현 애널리스트](#)

건조한 매출 성장세 지속 전망

올해 연결 매출액은 704억원으로 11.4%(yoy) 증가할 전망. 내수 경기 부진으로 기업들의 IT투자 위축세가 이어지겠지만, 안정적인 수주잔고(23년말 509억원) 및 신규 고객사 확보에 기인한 외형 성장이 가능할 전망. 4월 중 개발 완료 예정인 통합 공급망 관리(SCM) SaaS 플랫폼이 글로벌 시장에 조기 안착한다면 더 높은 매출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기대됨. 다만 올해까지는 글로벌 사업 확장 및 기술력 강화를 위한 투자 확대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영업마진을 개선폭은 크지 않을 전망

글로벌 시장 진출 원년

출시를 앞둔 통합 공급망 관리 SaaS 플랫폼은 세계 최초로 공급망계획(SCP_오나인솔루션즈)과 구매 공급망관리(SRM_엠로), 공급망물류(SCE_삼성SDS)를 통합한 솔루션이라는 점에서 시장 경쟁력이 높을 것으로 예상됨. 더욱이 국내 시장 규모의 50배를 상회하는 글로벌 시장에서 공급망계획 분야 선도 업체 오나인솔루션즈와 파트너십을 맺었다는 점에서 빠른 시장 안착 가능성이 높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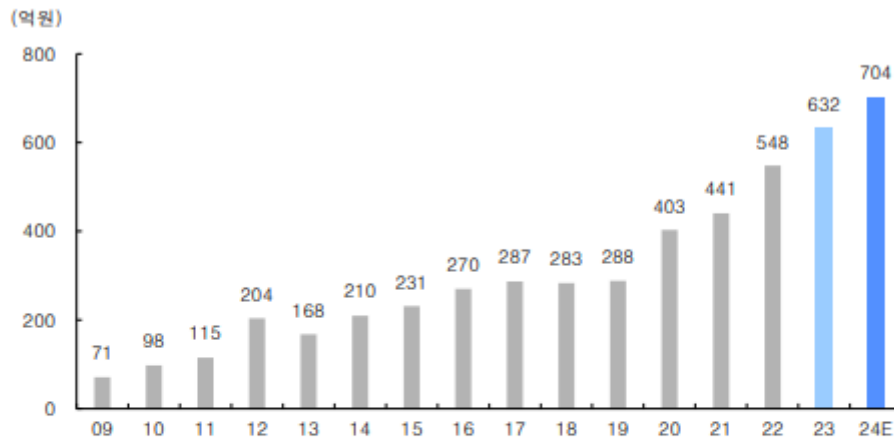
국내도 성장 여력 충분

현재 국내 고객사는 500여 개 수준이며, 매출 천억원 이상의 기업들을 잠재 고객으로 가정했을 때 시장 침투율(솔루션 도입율)은 약 15%로 아직 국내 구매 공급망관리 솔루션 시장의 성장 여력은 충분하다고 보여짐. 또 신규 고객 뿐 아니라 기존 고객사 대상의 AI 기능 추가 및 고도화 프로젝트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단위:십억원배)	2018	2019	2020	2021	2022
매출액	28	29	40	44	55
영업이익	0	1	6	7	6
세전이익	-1	1	4	7	7
당기순이익	-1	1	3	6	6
EPS(원)	-57	92	329	514	545
증가율(%)	-166.8	-261.1	256.4	56.5	6.0
영업이익률(%)	0.0	3.4	15.0	15.9	10.9
순이익률(%)	-3.6	3.4	7.5	13.6	10.9
ROE(%)	-4.5	8.5	29.9	20.2	13.3
PER	-18.7	16.3	17.9	39.6	24.1
PBR	0.9	1.7	4.7	5.3	2.9
EV/EBITDA	16.0	7.3	8.0	21.3	1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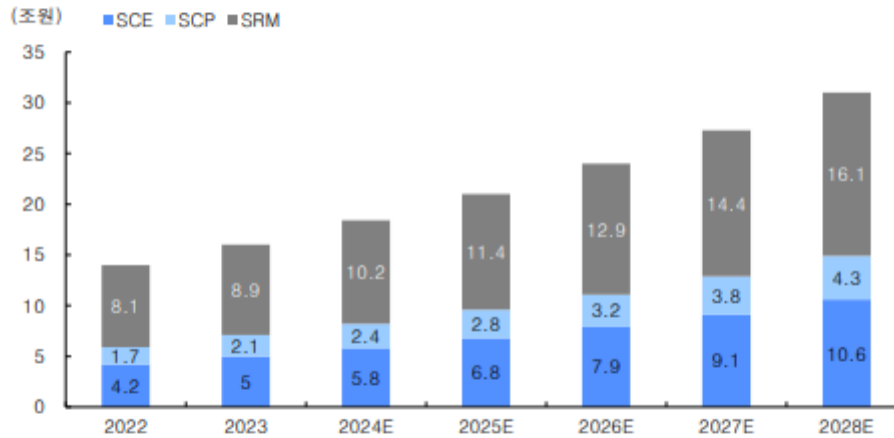
자료: Company data, IBK투자증권 예상

그림 1. 매출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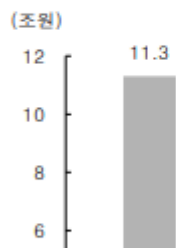
자료: 영모, IBK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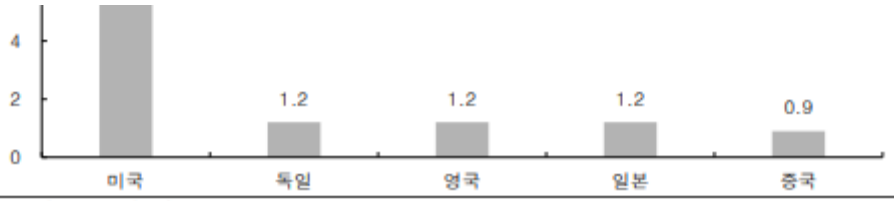
그림 2. 글로벌 SCM SaaS 시장 규모 및 전망



자료: IDC, 영모, IBK투자증권
주: 기준환율(달러)=1,342.6원

그림 3. 국가별 SCM 시장 규모(상위 5개국)





자료: IDC, 엠브, IBK투자증권

주: 기준환율(달러)=1,342.6원



우양

냉동 김밥, 미국 대형 유통망 점령 기대

[\[출처\] 유안타증권 손현정 애널리스트](#)

K-핫도그 시장 선두주자

우양은 국내 1위 냉동 핫도그 제조 기업으로 핫도그 외에도 냉동 김밥 등 HMR, 퓨레, 음료베이스 등을 생산한다. 2023년 3분기 기준 매출 비중은 HMR 41.4%, 음료베이스 16.2%, 퓨레 6.1%, 기타제품 24.2%, 상품 12.1%이며, HMR의 88%는 핫도그다. 주요고객은 CJ제일제당, 풀무원, 스타벅스 등이 있으며, 지역별 매출비중은 내수 91.5%, 수출 8.5%이다.

냉동 김밥, 미국 대형 마트 수출 확보

동사는 2024년 4월부터 미국 현지 대형 유통체인을 통해 냉동 김밥을 수출해 2분기부터 신규 매출이 반영될 전망이다. 냉동 김밥 월 CAPA는 90만개 수준으로, 월 20~25억원의 매출 창출이 가능한 규모이다. 냉동 김밥은 미국에서 최근 품질대란이 일어나는 등 화제를 모은 K-푸드다. 동사는 2023년부터 핫도그를 통해 Costco 등 대형 유통망을 확보한 만큼, 신제품 냉동 김밥의 수출은 더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K-Food '핫도그' 글로벌 대형 유통망 확장 기대

주력제품인 냉동 핫도그는 미국에서 큰 인기를 끌면서 수출 확대에 나서고 있다. 1H23 이후부터 시작된 미국향 핫도그 수출에 힘입어 동사의 수출 비중은 2022년 5%에서 2023년 11%로 늘어난 것으로 추정한다. 분기별 수출금액은 1Q23 22억원 → 2Q23 44억원 → 3Q23 54억원을 기록했다. 해외 K-Food 열풍으로 핫도그는 Costco 글로벌 소싱 품목으로 확정되었으며, 1Q24에 호주, 일본, 대만 등 글로벌 Costco로의 확장 논의를 진행 중이다. 동사는 HMR 핫도그 시장의 공급자 우위를 점하고 있다. 국내 Costco 들어가는 모든 핫도그 브랜드의 OEM을 담당하고 있으며, 해외 대형 마트에 납품할 수 있는 기업은 현재 동사가 유일한 것으로 판단된다.

Forecasts and valuations (K-IFRS 연결)

(억원, 원, %, 배)

결산 (12월)	2019A	2020A	2021A	2022A
매출액	1,179	1,331	1,392	1,634
영업이익	60	65	21	1
지배순이익	34	41	13	-30
PER	13.8	15.6	60.4	-19.9
PBR	1.8	1.8	1.9	1.5
EV/EBITDA	9.2	9.5	15.0	15.3
ROE	13.3	11.4	3.2	-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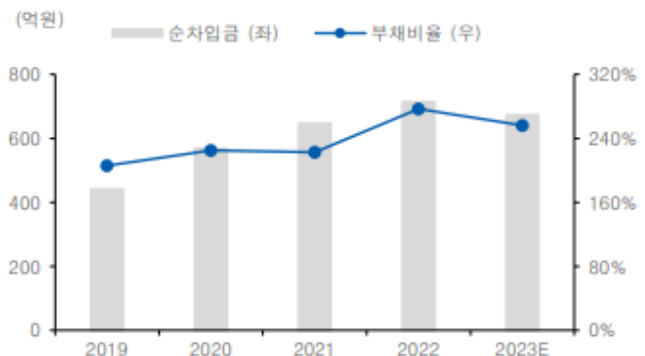
자료: 유안타증권

연간 실적 추이 및 전망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순차입금 및 부채비율 추이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한화오션

2분기부터 실적 회복 기대

[\[출처\] 하나증권 유재선 애널리스트](#)

목표주가 33,000원, 투자의견 매수 유지

한화오션 목표주가 33,000원과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한다. 4분기 실적은 시장 컨센서스를 하회했다. 상선 공정 진행 본격화, 지체보상금 환입, 드릴십 매각 등으로 외형은 성장했으나 생산공정 안정화 관련 일회성 비용이 대규모로 인식되면서 적자를 기록했다. 2023년 연간 신규 수주는 41.1억달러로 연간 목표 69.8억달러 대비 58.8%를 달성했다. 기존 흐름과는 다르게 2024년 매출 및 신규 수주 가이던스는 제공되지 않았다. 기말 기준 수주잔고는 인도기준 281.1억달러로 전분기대비 소폭 개선되었다. 2024년 추정치 기준 PBR 2.4배다.

4Q23 영업이익 -488억원(적자전환)으로 컨센서스 하회

4분기 매출액은 22,309억원을 기록하면서 전분기대비 16.4%, 전년대비 53.9% 개선되었다. 조업일수가 전분기대비 늘어나며 건조물량이 증가한 가운데 LNG선 매출 비중이 상승하며 외형이 성장했다. 특수선 부문에서는 지체보상금 환입 530억원, 해양 부문은 드릴십 매각 및 인도로 1,100억원이 반영되었다. 영업이익은 -488억원을 기록하면서 전분기대비 적자로 전환했다. 특수선 부문 지체보상금 환입과 해양 드릴십 인도 및 매각 수익에 의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생산공정 안정화 비용이 상선 부문에서 1,400억원, 해양 부문에서 800억원 가량 반영되면서 다소 부진한 실적을 기록했다. 한편 해당 일회성 요인들을 제외하면 경상적인 실적은 BEP 수준은 달성한 것으로 보인다. 당기순이익은 이연법인세자산 인식으로 흑자를 기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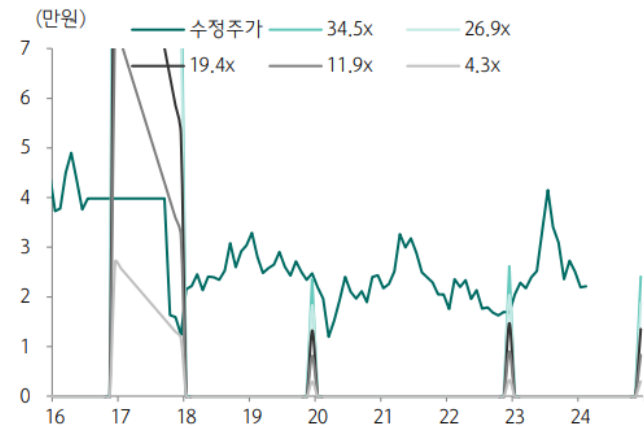
상선 중심 성장으로 2024년 연간 영업흑자 전망

2024년은 E-7, E-9 비자 인력 확보로 생산공정이 정상화되는 가운데 LNG선 매출 비중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며 상선 부문 중심의 성장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연간 20척 이상 LNG선 생산체계 확립 및 상반기 중 기존 대형 컨테이너선 인도 완료를 통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턴어라운드 기대된다. 1분기 중 일부 생산공정 관련 비용 집행이 예상되고 있지만 해당 비용이 해소되는 2분기부터 정상화가 기대되며 연간 기준으로는 흑자 전환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Financial Data (십억원, %, 배,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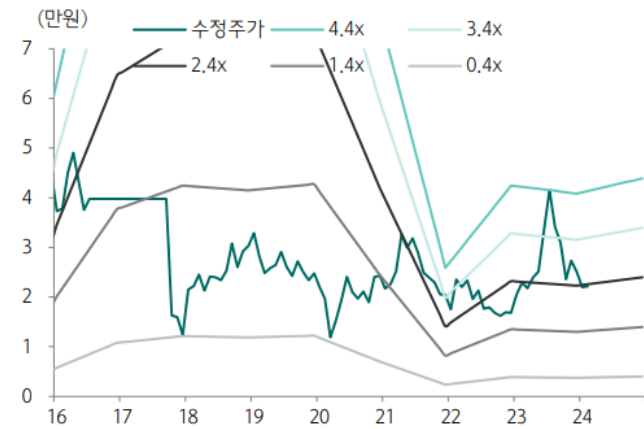
투자지표	2021	2022	2023P	2024F
매출액	4,486.6	4,860.2	7,408.3	9,480.0
영업이익	(1,754.7)	(1,613.6)	(196.5)	225.7
세전이익	(1,727.5)	(1,794.3)	(116.3)	(124.6)
순이익	(1,699.8)	(1,744.8)	159.9	(113.2)
EPS	(13,403)	(13,757)	759	(370)
증감율	적전	적지	흑전	적전
PER	(1.53)	(1.22)	33.07	(59.86)
PBR	1.17	2.86	2.60	2.39
EV/EBITDA	(2.08)	(2.67)	(158.39)	20.63
ROE	(55.86)	(117.79)	8.64	(3.91)
BPS	17,491	5,880	9,650	9,281
DPS	0	0	0	0

도표 2. 한화오션 12M Fwd PER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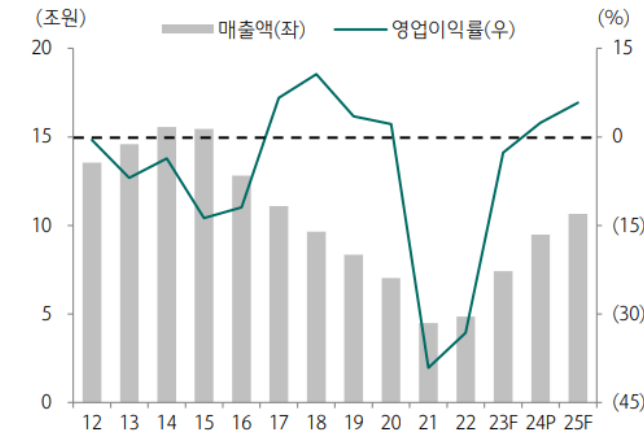
자료: 한화오션, 하나증권

도표 3. 한화오션 12M Fwd PBR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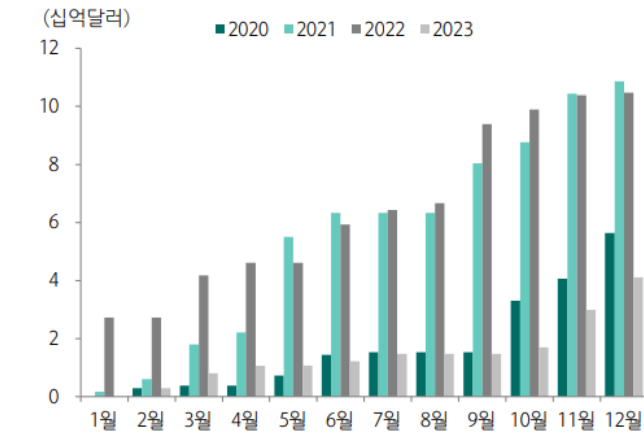
자료: 한화오션, 하나증권

도표 4. 연간 영업실적 추이 및 전망



자료: 한화오션, 하나증권

도표 5. 월별 누적 수주금액 추이 (2023년 12월 말 기준)



자료: 한화오션, 하나증권



삼성물산

지속가능 성장과 주주환원 강화

[출처] NH투자증권 김동양 애널리스트

지속가능 성장과 주주환원 강화

삼성물산은 캡티브 강세의 건설과 증설 진행 중인 바이오가 실적 이끄는 가운데, 기타 부문 코로나19 영향 해소로 이익체력 강화. 2024년에도 기존 핵심사업 고도화, 친환경 에너지/바이오 사업포트폴리오 강화 투자 확대 계획(1.0조원 이상)

상속세 납부 위한 0.65% 처분신탁에 따른 지배주주 지분 축소(31.15%), 해외행동주의펀드 주주제안(시티오브런던 등 4사/1.46%, 배당 확대 및 자사주 취득), 정부 기업밸류업 프로그램 운영 계획 발표 등으로 주주가치 제고에 대한 시장 기대감 상승. 제 3기 3개년 주주환원정책(2023~2025년) 시행 중이며, 보유자사주 중 1/3 소각 확정 및 2026년까지 전량 소각 일정 구체화

실적전망 조정, 상장계열사 주가변동, 자사주 소각계획 구체화에 따른 목표할인율 축소(50%→35%) 등 반영하여 목표주가를 180,000원에서 230,000원으로상향. 투자이견 Buy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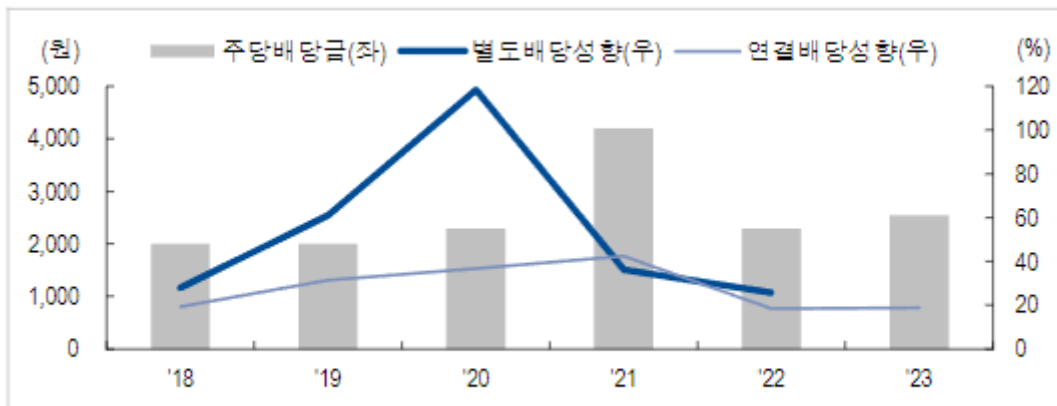
2024년에도 견조한 실적 성장 전망

삼성물산은 2024년에도 매출액 42조3,726억원(+1% y-y), 영업이익 2조9,860억원(+4% y-y)으로 견조한 성장 이어갈 전망. 영업환경 불확실성 확대에도 캡티브 포함 기수주물량 바탕으로 건설(영업이익 1조9억원, -3% y-y)이 레벨업된 이익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바이오(1조1,979억원, +10% y-y) 고성장 지속 뿐 아니라, 식음(1,449억원, +10% y-y), 패션(2,115억원, +10% y-y) 등의 실적 개선 전망

	2022	2023P	2024F	2025F
매출액	43,162	41,896	42,373	43,648
증감률	25.3	-2.9	1.1	3.0
영업이익	2,529	2,870	2,986	3,361
증감률	111.4	13.5	4.0	12.6
영업이익률	5.9	6.9	7.0	7.7
(지배지분)순이익	2,044	2,218	2,491	2,778
EPS	10,919	11,907	13,811	15,601
증감률	25.3	9.0	16.0	13.0
PER	10.4	10.9	12.3	10.9
PBR	0.8	0.8	1.0	0.9
EV/EBITDA	8.1	8.6	10.2	9.0
ROE	7.2	8.0	8.3	8.6
부채비율	84.5	72.4	67.8	63.8
순차입금	-1,161	653	-776	-2,364

단위: 십억원, %, 원, 배

주주환원 추이



자료: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전망



서부T&D

중국관광객은 플러스 요소일 뿐

[\[출처\] IBK투자증권 남성현 애널리스트](#)

2023년 역대 최대 실적 달성

2023년 서부T&D 영업실적은 역대 최고치를 달성하였다. 2024년 연결기준 매출액은 전년대비 +25.0% 성장한 1,692억 원, 영업이익 368억 원(전년대비 +91.6%)을 기록하였다. 4분기 영업실적은 역대 최대치로 연결기준 매출액 488억 원(전년동기대비 +24.0%), 영업이익 146억 원(전년동기대비 +77.0%)을 달성하였다. 역대 최고 실적은 호텔 사업부 성장이 기여하였는데, 수요 증가와 공급부족에 따른 우호적 업황에 따라 ADR과 OCC 모두 개선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특히, 중국인 관광객 입국자수 증가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의미가 크다는 판단이다.

2024년에도 구조적 성장 이어질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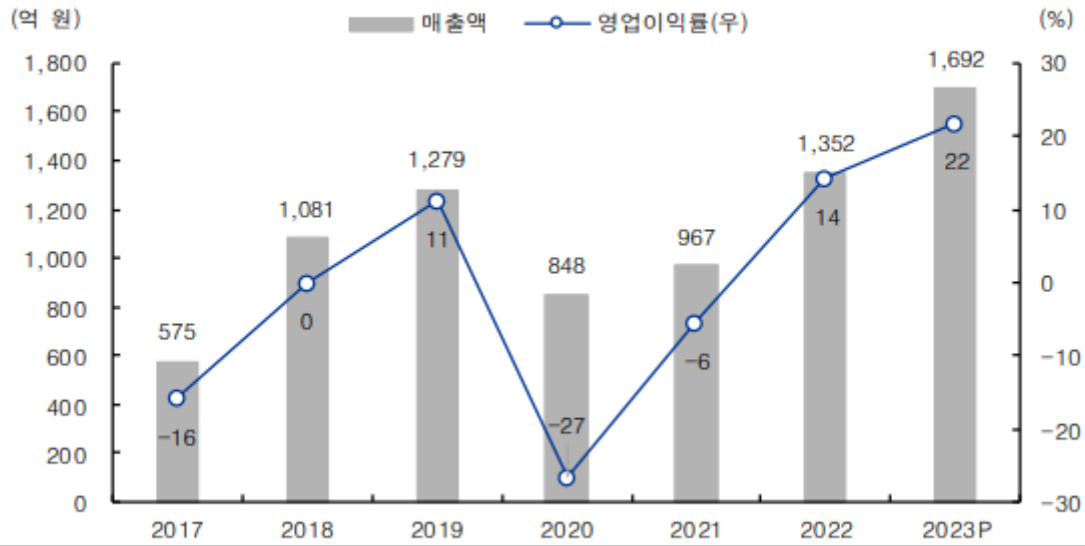
동사의 실적 성장은 구조적 요인으로 해석한다. 그러한 이유는 1) 호텔 실적 성장을 이끈 요인이 수요와 공급의 영향이 동시에 작용하였고, 2) 방한 외국인 중 중국인 수요 회복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과, 3) 2022년 높은 기저를 넘어서는 실적 성장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호텔 시장은 2019년 이후 공급이 감소하는 구간에 진입하였고, 이에 따라 눌려있던 수익성 지표가 회복되는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는 판단이다. 특히, 방한 외국인 수요가 온전한 회복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의미가 있다. 2023년 관광목적 방문객수는 약 888만명으로 코로나 이전인 2019년 1,443만명에 비하면 약 38% 적은 수치이다.

(단위:십억원,배)	2018	2019	2020	2021	2022
매출액	-	-	85	97	135
영업이익	-	-	-23	-5	19
세전이익	-	-	-36	36	30
지배주주순이익	-	-	-35	40	17
EPS(원)	-	-	-514	597	248
증가율(%)	-	-	0.0	-216.0	-58.5
영업이익률(%)	-	-	-27.1	-5.2	14.1
순이익률(%)	-	-	-41.2	40.2	18.5
ROE(%)	-	-	-5.5	6.2	2.5
PER	-	-	-12.9	13.4	28.5
PBR	-	-	0.7	0.8	0.7
EV/EBITDA	-	-	-350.4	123.6	3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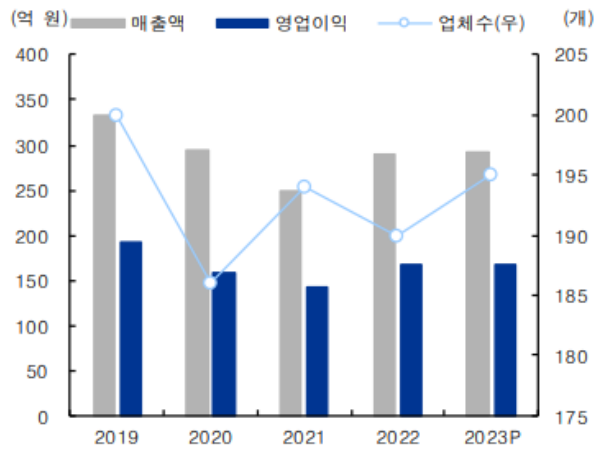
자료: Company data, IBK투자증권 예상/ 주: 2020년부터 연결기준

그림 1. 서부T&D 매출액 및 영업이익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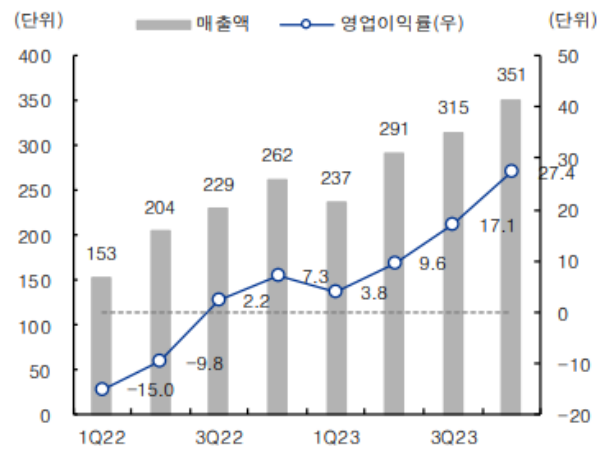
자료: Quantiwise, 서부T&D, IBK투자증권

그림 2. 스케어원 영업실적 및 업체수



자료: 서부T&D, IBK투자증권

그림 3. 서울 드래곤시티 분기별 영업실적 추이



자료: 서부T&D, IBK투자증권



7,680 30 -0.39% 91,391 93.72% 0.15% 703백만 호가 7,690 7,680 시 7,750 고 7,770 저 7,650 매수 매도 평

서부T&D 증가 단순 3 120 증가 단순 45 8 224 15 10 증가 단순 100 150억 강세패턴

